

# 주일학교

## Our Lady of Mercy Parish 주일학교



우리 Our Lady of Mercy Parish 주일학교는 K~12학년까지 학생들에게 하느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고,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배우는 곳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희망이며 보배인 어린이들과 청소년의 신앙심을 심어주고 한국인의 정체성을 확립시키는데 교육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대내외적인 열악한 조건과 전입 인구 감소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신앙심을 바탕으로 개교의 본뜻을 성실히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담당 교사들의 헌신적인 봉사, 그리고 시간상, 거리상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의 교육을 위해 매주 참석하고 있는 학부모님들 열정에 미래는 밝습니다.



1. 2021년 9월 8일 주일학교와 유스그룹 오리엔테이션  
2. 자모회 주관 주일학교 기금마련 음료판매 행사 전경  
3. 2021년 10월 2일에 노트르담 대학교 동창회에서 주최하는 봉사 활동에 4명의 학생 (지나, 명진,서진,리나) 과 찰리, 마이클, 수완 선생님 동행

### - 초중등부 (K-8학년)

9월부터 5월까지 매 주일 오전 10시부터 11시 10분까지 친교실에서 학년 별로 수업이 있으며, 미사, 교리교육, 그 외 특별 활동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배우가고 있습니다.

### - 고등부 (9-12학년)

청소년들이 봉사 및 다양한 특별 활동을 통하여 복음적 삶을 깨닫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한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 - 교사부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매주 미사와 교리 및 특별 활동을 통해 하느님을 알게 하고, 학생들이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교장 : 김수완 세실리아

교감 : Charles Skriner

K-1학년 : 최수린, Lora Huszar

2-3학년: 김수완 세실리아, Ana Rivera-Ortega

4-8학년: Charles Skriner, 송진영 마리스텔라

### - 자모회

주일학교에 아이를 둔 자모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주일학교 행사와 활동을 지원합니다.



4. 주일 학교 기금 마련을 위한 대립초화환 제작 중인 자모회 (2021년 11월 21일)  
5. 주일학교 학생들의 화분심기 봉사(2022년 5월1일)

부활  
제 6주일

2022년  
5월 22일



### 미사 시간 안내

평 일 (영어미사)

화요일 - 7 : 00 PM

수 ~ 금 - 9 : 00 AM

### 주 일 (한국어/영어 미사)

토(특전/영어) - 4 : 00 PM

일요일 (영어) - 9 : 00 AM

(한국어) - 11 : 30 AM

### 사무실 안내

주소: 122 High Street  
South Bound Brook, NJ 08880

# Tel: 732-356-1037

# Email: office@edisonkcc.org

# 근무시간: 화~금 10am~3pm

<http://www.edisonkcc.org>

### 에디슨한인천주교회

주임신부  
이남웅 스테파노

본당부제  
윤석로 이나시오

평협회장  
채희백 바오로



# 에디슨한인천주교회

OUR LADY OF MERCY PARISH



### < 마에스타 Maesta > Duccio Di Buoninsegna, 1308-1311

### <이번 주 전례 안내>

# 제1독서 사도행전 15,1-2.22-29

# 화답송 시편67(66),2-3.5.6과 8  
(◎4참조)

◎ 하느님,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 제2독서 요한 묵시록 21,10-14.22-23

# 복음환호송 요한 14,23 참조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 복음 요한 14,23L-29  
<성령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실 것이다.>

주간 전례 말씀	제1독서/제2독서	복음 말씀
월요일 05/23/22	사도행전 16,11-15	요한 15,26-16,4 7
화요일 05/24/22	사도행전 16,22-34	요한 16,5-11
수요일 05/25/22	사도행전 17,15.22-18,1	요한 16,12-15
목요일 05/26/22	사도행전 1,1-11	루카 24,46-53
금요일 05/27/22	사도 바오로 에페소서 1,17-23	요한 16,20-23 7
토요일 05/28/22	사도행전 18,9-18	요한 16,23L-28
일요일 05/29/22	사도행전 18,23-28	요한 17,20-26
	사도행전 7,55-60	
	요한 묵시록 22,12-14.16-17.20	



**미사지향**

<b>연미사</b>	<b>- 봉헌자</b>
•이근수(세례자 요한)	- 성가대, 허 아나스타시아 사우스브런스윅 구역, 나채국(제노)
•김진철(요한)	- 가족
•김경희(수산나)	- 가족
•오홍순(카타리나)	- 가족
•김명자(헬레나)	- 가족
•박병희	- 김 스텔라
•김영규, 박귀자	- 이윤경(비르짓따)
•김명자(세실리아)	- 송광석(어거스틴)
•이동현(요셉)	- 허기욱(바오로)
•이성현	- 이재구(프란치스코)
•허길자(세실리아)	- 가족

**생미사**

<b>생미사</b>	<b>- 봉헌자</b>
•염은미(클라라)	- 가족,
•오경선(원선시오)	- 허기욱(바오로)
•하건철(안토니오)	- 허기욱(바오로)
•박재영(요아킴)	- 허기욱(바오로)
•유병기(베네딕도), 유용희(울리아나)	- 이 케이트 채희백(바오로), 채미영(데레사)
•성당에 아프신 분들과 그 가족들	- 교우
•김옥전	- 김태경(카타리나)
•최두철(요셉) 가정	- CLC 해바라기 공동체
•김도용(스테파노)	- 김순옥(울리아)
•황태진(필립보), 황옥자(데레사)	- 김순옥(울리아)
•김민주(이스베리가)	- 최정원(레지나)
•이슬기(레이첼) 졸업 축하	- 김순옥(울리아)
•함형우(요셉) 졸업 축하	- 박락준(베드로)
•김하랑(레오) 세례 축하	- 박락준(베드로), 노스에디슨 구역
•박지나(안젤리나), 고명진(다이애나) 견진 축하	- 주일학교 자모회, 채미영(데레사), 이서형(요안나), 최정원(레지나), 한지혜(크리스티나)

**주일 헌금**

미사 참여 136명	합계 : \$1,383
------------	--------------

**감사 헌금**

정 마이클(\$100)	변태용(\$500)
--------------	------------

**교무금 납부 안내**

손종철(4-6)	오현주(5-6)	오용덕(5-6)
정마이클(5)		합계: \$1,350

**공지사항**

- # 2차헌금
- 5월 22일: Development of People
- 5월 29일: Catholic Communication Campaign

- # 기획분과 회의
- 일시 및 장소: 6월 5일 (주일) 미사 후 친교실

- # 전례분과 피정
- 일시 및 장소: 6월 12일 (주일) 미사 후 성당

# 5월 26일 주님 승천 대축일 미사는 5월 29일 (주일)에 있습니다.

- # 사물놀이 팀 개강
- 일시 및 장소: 6월 4일 (토) 오전 10시, 친교실
- 준비물 : 장구와 받침대, 팽과리, 징
- 기존 단원 및 신규 단원 환영
- 문의 : 정길예(프란체스카) 352-682-2525

- # 제 78차 미동북부 ME 부부주말
- 일시: 5월 28일 (토) 저녁7시 ~ 30일(월) 오후 5시
- 장소: 헌팅턴 수도원, 롱아일랜드
- 신청: 미동북부 대표 김정현 요한, 류정아 아녜스 부부 917-415-4200, johannesMENY@gmail.com

- # 2022 Bishop's Annual Appeal
- 2022년 Bishop's Annual Appeal 목표금액 \$35,000을 달성하였습니다. 5/17까지 약정금액은 \$35,897(목표금액의 102.6%, 112가정 참여)입니다.

# 5월 24일 견진 성사를 앞두고 있는 박지나(안젤리나), 고명진(다이애나) 학생을 위한 신자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예전 혼성 4부 성가책을 가지고 계신 분은 성당으로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쉬는 교우 후보 보내기 운동을 위해 기부해 주신 채미영(데레사) 자매님께 감사드립니다.

# 성당 화단 꽃 구입을 위해 기부해 주신 채희백(바오로), 오용덕(헨리코) 형제님과 채미영(데레사), 오경숙(세실리아) 자매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화단 꽃심기 봉사에 참여해 주신 모든 교우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 부제님 진료 및 영성 상담  
- 최승웅(미카엘) 부제님과 의료 및 영성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매 주일 미사 후 오후 12시 30분부터 2시까지 친교실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환우들의 빠른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정영철(프란치스코)	하건철(안토니오)
오용덕(헨리코)	오경선(원선시오)
염은미(클라라)	

**제 1독서 <사도행전> 15,1-2.22-29**

그 무렵 유다에서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 “모세의 관습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고 형제들을 가르쳤다. 그리하여 바오로와 바르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분쟁과 논란이 일어나, 그 문제 때문에 바오로와 바르나바와 신자들 가운데 다른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원로들에게 올라가기로 하였다. 그대에 사도들과 원로들은 온 교회와 더불어, 자기들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뽑아 바오로와 바르나바와 함께 안티오키아에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뽑힌 사람들은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인 바르사빠스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스였다. 그들 편에 이러한 편지를 보냈다. “여러분의 형제인 사도들과 원로들이 안티오키아와 시리아와 킬리키아에 있는 다른 민족 출신 형제들에게 인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이 우리에게서 지시를 받지 않고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 가지 말로 여러분을 놀라게 하고 정신을 어지럽게 하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뽑아 우리가 사랑하는 바르나바와 바오로와 함께 여러분에게 보내기로 뜻을 모아 결정하였습니다. 바르나바와 바오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또 유다와 실라스를 보냅니다. 이들이 이 글의 내용을 말로도 전할 것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다음의 몇 가지 필수 사항 외에는 여러분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곧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과 피와 목 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불륜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들만 삼가면 오히려 사는 것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 2독서 <요한 묵시록> 21,10-14.22-23**

천사는 성령께 사로잡힌 나를 크고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서는, 하늘로부터 하느님에게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 도성은 하느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광채는 매우 값진 보석 같았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았습니다. 그 도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과 열두 성문이 있었습니다. 그 열두 성문에는 열두 천사가 지키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열두 지파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 동쪽에 성문이 셋, 북쪽에 성문이 셋, 남쪽에 성문이 셋, 서쪽에 성문이 셋 있었습니다. 그 도성의 성벽에는 열두 초석이 있는데, 그 위에는 어린양의 열두 사도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느님과 어린양이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도성은 해도 달도 비출 필요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영광이 그곳에 빛이 되어 주시고 어린양이 그곳의 등불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요한 복음 > 14,23-29**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이것들을 이야기하였다.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실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나는 갔다가 너희에게 돌아온다.’고 한 내 말을 너희는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보다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성모 성월 기도**

-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내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내 마음 기뻐 뛰노네.
- 그분은 비천한 당신 종을 굽어보셨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하리라.
-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큰일을 하셨으니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 그분 자비는 세세 대대로 그분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미치리라.
- 그분은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흠으셨네.
- 권세 있는 자를 자리에서 내치시고 비천한 이를 들어 올리셨네.
- 굶주린 이를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고 부유한 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네.
- 당신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돌보셨으니
-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그분의 자비 영원하리라.
-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 + 기도합시다.  
저희를 하느님 아버지께 이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를 저희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저희의 친구자로 세우셨나이다.  
비오니, 성모 마리아의 전구를 들으시어 저희가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 아멘.